

2014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 총평 및 해설

과목 : 한국사

해설 : 이명호 교수(아모르이그잼)

- **총평** : 2014년 4월 19일에 치러진 시험이라고 ‘4·19 혁명’ 문제를 기본적으로 넣어준 출제자의 예측 가능한 재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 전체적으로 ‘쉽지 않았던’ 시험입니다. 이전의 국가직, 지방직, 경찰 시험 문제에서 보였던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한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보이지 않던 다음과 같은 특징이 보입니다.

- 1) 근현대사는 일반적으로 ‘개항·개화기 / 일제강점기 / 현대’로 구분하여 공부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일제강점기에서 2문제, 현대사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개항·개화기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도, 강화도조약도, 갑신정변도, 동학농민운동도, 대한제국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시험입니다. 말하자면 근현대사를 다 합쳐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기별로 고루 출제되지는 않았네요. 선사시대와 초기국가를 합쳐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개항·개화기가 출제되지 않다니요.
- 2) 이번 시험에서는 이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가)-(나)-(다)-(라)’ 사건의 전개 순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풀 때마다 까다로움을 느끼는 문제 형태이지만, 그래도 없으니 서운하네요.
- 3) 그래프 세 개가 주어진 ‘규모 있는’ 문제가 하나 출제되었습니다. 조선, 일본, 중국의 시기별 인구변화와 관련된 문제였지요. 이 문제는 역사적 개념을 암기하여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내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사회’ 과목으로 착각하신 분은 없겠지요.

● 문제별 해설

(문제 해설은 S책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는 삼국시대의 금석문은?

-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인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을 호칭할 때 ‘동이 매금(東夷 寐錦)’이라고 부르고 있다.
- 고구려가 신라의 왕과 신하들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의식을 거행한 것으로 보인다.

- ① 광개토왕비 ② 집안고구려비 ③ 중원고구려비 ④ 영일냉수리비

1. 정답 ③

중원고구려비에는 ‘신라토내당주’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당주’란 군사령관을 말하는 것으로, 신라 영토 내에 고구려의 군사령관이 있었다, 즉 고구려 군대가 신라 영토에 주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원고구려비에는 또한 ‘동이매금’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이를 통해 중원고구려비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호 한국사> p. 103~104 참조

2. 신라 하대 불교계의 새로운 경향을 알려주는 다음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문자를 세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교리를 떠나서 심성(心性)을 도야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상에서 주장하는 바는 인간의 타고

난 본성이 곧 불성(佛性)임을 알면 그것이 불교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라는 견성오도(見性悟道)에 있었다.

- ① 전제왕권을 강화해주는 이념적 도구로 크게 작용하였다.
- ② 지방에서 새로이 대두한 호족들의 사상으로 받아들여졌다.
- ③ 왕실은 이 사상을 포섭하려는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 ④ 인도에까지 가서 공부해 온 승려들에 의해 전파되었다.

2. 정답 ②

‘불립문자’, ‘견성오도’는 선종에서 쓰는 용어이다. 신라 하대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새로운 사상으로선종을 수용하였다.

<이명호 한국사> p. 677~678 참조

3.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 중국인은 중국을 중심으로 삼고 서양을 변두리로 삼으며, 서양인은 서양을 중심으로 삼고 중국을 변두리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로 하늘을 이고 땅을 밟는 사람은 땅에 따라서 모두 그러한 것이니 중심도 변두리도 없이 모두가 중심이다.

- ①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어놓았다.
- ② 「임하경륜」을 통해서 성인 남성들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을 주장하였다.
- ③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④ 「동국지도」를 만들어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

3. 정답 ②

‘중국은 서양과 180도 정도 차이가 난다’는 실학자 홍대용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사료이다. 홍대용은 「임하경륜」에서 균전제(균전론)를 주장하였다. 이 균전제는 유형원의 균전론과는 달리 성인 남성들에게 각각 2결의 토지를 지급하는 진정한 균등분배 방식의 토지 개혁론이다.

- ① 역사지리지인 「동국지리지」를 저술한 인물은 ‘한백겸’이다. <이명호 한국사> p.387 참조
- ③ 역사서인 「동사」에서 조선의 자연환경과 풍속, 인성의 독자성을 강조한 인물은 ‘허목’이다. <이명호 한국사> p.752 참조
- ④ 「동국지도」는 세조 때의 동국지도와 영조 때의 동국지도가 있다. 지도 제작의 ‘과학화’와 어울리는 시기는 조선 후기이므로, 제시된 「동국지도」는 영조 때의 것으로 보면 된다. 제작자는 ‘정삼기’이다. <이명호 한국사> p. 385~386 참조

4.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사령에 이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을 선임하였다.
- ② 영국군의 요청으로 일부 병력을 인도와 버마(미얀마) 전선에 참전시켰다.
- ③ 미국 전략정보처(OSS)와 협력하면서 국내 진공을 준비하였다.

④ 조선의용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해 선전 포고를 하였다.

4. 정답 ④

1940년에 창설된 한국광복군이 1941년에 대일 선전포고를 한 것은 맞지만, 조선의용군과 연합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용군을 조선의용대로 바꿔도 틀리다.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한국광복군에 들어온 것은 1942년이기 때문이다. <이명호 한국사> p. 585~586 참조

5. 8·15 광복 직후에 결성된 정당의 중심인물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된 정당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여운형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좌우합작을 추진하였다.
ㄴ. 송진우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려 하였다.
ㄷ. 안재홍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으며, 신민족주의를 내세워 평등사회를 건설하려 하였다.

그	ㄴ	ㄷ
① 조선인민당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② 조선신민당	민족혁명당	한국독립당
③ 조선신민당	한국민주당	국민당
④ 조선인민당	한국민주당	국민당

5. 정답 ④

여운형의 정당은 '조선인민당'이다. 조선신민당은 김두봉의 당이다. 송진우·김성수 등이 중심이었던 당은 '한국민주당'이다. 이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빠져 나온 우익들이다. 안재홍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당은 '국민당'이다.

<이명호 한국사> p. 606, 655 참조

6. 1960년대 전반 남북한에서 각기 조사 발굴되어 한국사에서 구석기시대의 존재를 확인시켜 준 유적들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남한	북한
① 제주 빌레못 유적	상원 검은모루 유적
② 공주 석장리 유적	웅기 굴포리 유적
③ 단양 상시리 유적	덕천 승리산 유적
④ 연천 전곡리 유적	평양 만달리 유적

6. 정답 ②

가장 먼저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함경도 종성 동관진' 유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발견되었다. 광복 이후 북한과 남한에서 각각 함북 웅기 굴포리 유적(1963년)과 공주 석장리 유적(1964년)이 발견되었다. <이명호 한국사> p. 34 참조

7. 통일신라시대 귀족경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제왕권이 강화되면서 신문왕 9년(689)에 이것을 폐지하였다. 이를 대신하여 조(租)의 수취만을 허락하는 관료전이 주어졌고, 한편 일정한 양의 곡식이 세조(歲租)로서 또한 주어졌다. 그러나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다시 이것이 부활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 ① 이것이 폐지되자 전국의 모든 국토는 ‘왕토(王土)’라는 사상이 새롭게 나오게 되었다.
- ② 수급자가 토지로부터 조(租)를 받을 뿐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을 노역(勞役)에 동원할 수 있었다.
- ③ 삼국통일 이후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육두품 신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급하였다.
- ④ 촌락에 거주하는 양인농민인 백정이 공동으로 경작하였다.

7. 정답 ②

신문왕 때 폐지된 것은 ‘녹읍’이다. 녹읍의 특징은 토지로부터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력 징발을 이 문제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노역에 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명호 한국사> p. 764 참조

- ① 삼국시대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토사상이 생겨났다. <이명호 한국사> p. 147 참조
- ③ 녹읍은 특히 ‘관료 귀족’에게 지급되었다. <이명호 한국사> p. 764 참조
- ④ 촌락에 거주하는 양인 농민이 공동으로 경작한 것은 민정문서에 언급되고 있는 관모전답, 내시령답, 마전 등이다. <이명호 한국사> p. 778 참조

8. 다음과 같은 풍속이 행해진 국가의 사회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풍속에 혼인을 할 때 구두로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집에는 대옥(大屋) 뒤에 소옥(小屋)을 만드는데, 이를 서옥(婿屋)이라고 한다. 저녁에 사위가 여자의 집에 이르러 문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끓어 앉아 절하면서 여자와 동숙하게 해줄 것을 애걸한다. 이렇게 두 세 차례 하면 여자의 부모가 듣고는 소옥에 나아가 자게 한다. 그리고 옆에는 전백(錢帛)을 놓아둔다. - 『삼국지』 「동이전」 -

- ① 고국천왕 사후, 왕비인 우씨와 왕의 동생인 산상왕과의 결합은 취수혼의 실례를 보여준다.
- ② 계루부 고씨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된 이후 연나부 명림씨 출신의 왕비를 맞이하는 관례가 있었다.
- ③ 관나부인(貫那夫人)이 왕비를 모함하여 죽이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질투죄로 사형을 받았다.
- ④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는 과정은 국왕이 중국식 혼인 제도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8. 정답 ③

‘대옥’ 뒤에 지은 ‘소옥’을 서옥이라 한다. 이것은 ‘고구려’의 혼인 풍속이다. <이명호 한국사> p. 70, 132 참조. 김흠운의 딸을 왕비로 맞이한 것은 신라의 신문왕으로, ④는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 ① 형사취수제는 고구려와 부여의 공통적인 풍속이다. 고국천왕 사후 그 왕비와 왕의 동생의 결혼은 ‘형사취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② 계루부는 고구려의 5부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5부족 중 소노부가 가장 강하였으나 점차 계루부가 강해져 왕족을 이루었다. 1세기 후반 태조왕 때부터는 계루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적

으로 세습하였다. 관례적으로 왕비는 연나부(貞昭夫人)에서 나왔다.

③질투죄에 대한 가혹한 규정은 부여에 존재한다. 부여에서는 부인이 질투를 하면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를 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일부다처제의 풍습이 상류층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투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고구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의 장발미인(長髮美人)으로 유명한 관나부인(貫那夫人)이 왕비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다가 도리어 자신이 사형을 받은 것은 질투죄에 대한 처벌의 한 예이다.(2012년 7급 문제에서 출제되었던 내용임)

9. 고려의 형률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로 당나라의 것을 끌어다 썼으며, 때에 따라 고려의 실정에 맞는 율문도 만들었다.
- ② 행정과 사법이 명확하게 분리·독립되어 있었다.
- ③ 실형주의(實刑主義)보다는 배상제(賠償制)를 우위에 두고 있었다.
- ④ 기본적으로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의 4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9. 정답 ①

고려의 법률은 당률(당나라의 것)을 준용하거나, 당률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률을 참고하여 만든 법률’을 ‘율문’이라 한다. <이명호 한국사> p. 233 참조

- ② 행정과 사법이 분리된 것은 ‘재판소’가 설치된 갑오 2차 개혁 때이다.
- ③ 실형주의는 ‘맞거나’ ‘유배를 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의 실제적인 형을 받는 것을 말한다. 고려의 형률은 당률을 주로 참고하였는데, 당률이 실형주의를 따르다보니 고려의 형률도 실형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 ④ 태, 장, 도, 유, 사의 5가지 형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10. 고려시대에는 귀족·양반과 일반 양민 사이에 ‘중간계층’ 또는 ‘중류층’이라 불리는 신분층이 존재하였다. 이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남반은 궁중의 잡일을 맡는 내료직(內僚職)이다.
- ② 하급 장교들도 이 신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 ③ 서리는 중앙의 각 사(司)에서 기록이나 문부(文簿)의 관장 등 실무에 종사하였다.
- ④ 향리에게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지 않았다.

10. 정답 ④

고려의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 즉 과거가 있었다. <이명호 한국사> p. 226, 227, 306 참조

①~③ 궁중의 일은 ‘남반’, 중앙의 일은 ‘잡류(서리)’가 하였다. 하급장교인 ‘군반’도 중류층이었다. <이명호 한국사> p. 226 참조

11. 밑줄 친 ‘국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국왕은 행차 때면 길에 나온 백성들을 불러 직접 의견을 들었다. 또한 척신 세력을 제거하여 정치의 기강을 바로 잡았고, 당색을 가리지 않고 어진 이들을 모아 학문을 장려하였다. 침전에는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이라는 편액을 달았으며,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달은 태극이며 그 태극은 바로 나다.”라고 하였다.

- ① 병권 장악을 위해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 ②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복벌을 추진하였다.
- ③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 ④ 백성의 여론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신문고제도를 부활하였다.

11. 정답 ③

‘탕탕평평실’이라는 말 때문에 영조 또는 정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왕이 ‘행차’한다는 표현에서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아버지인 사도세자(장헌세자)의 능을 찾아가기 위해 혜경궁 홍씨와 함께 ‘수원으로 행차’하였던 정조에게 어울리는 단어이다. 정조는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이를 신행통공이라 한다. <이명호 한국사> p. 323~324 참조

- ① 금위영은 5군영 중 마지막으로 설치된 중앙군으로서, 조선 숙종 때 설치되었다. <이명호 한국사> p. 298 참조
- ② 왕 중심으로 복벌이 추진된 때는 효종 때이다. <이명호 한국사> p. 340 참조
- ④ 신문고 제도가 태종 때 생겼다가 폐지되고, 이 제도가 다시 부활된 것은 영조 때이다. <이명호 한국사> p. 323 참조

1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국왕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 원나라의 제도를 따라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고 전상(殿上)에 앉아 있었다. 이연종이 간하려고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왕이 사람을 시켜 물었다. …(중략)… 답하기를 “변발과 호복은 선왕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본받지 마소서.”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면서 즉시 변발을 풀어 버리고 그에게 옷과 요를 하사하였다.

- 『고려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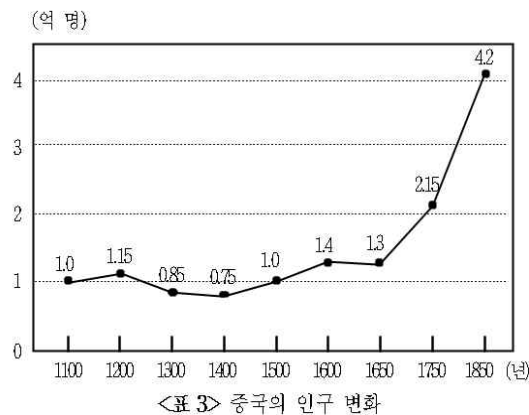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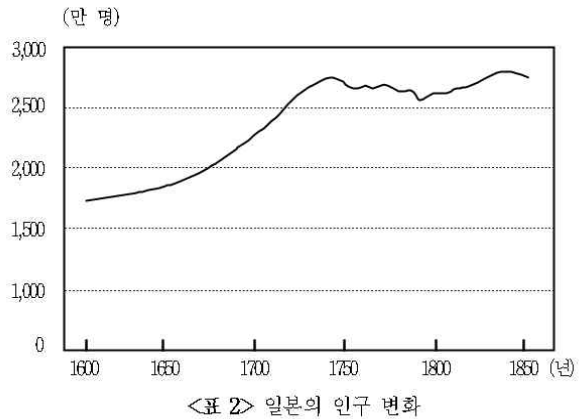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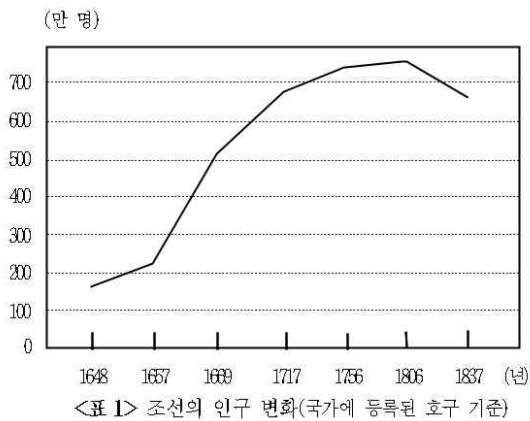
- ① 노비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장례원을 설치하였다.
- ②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 ③ 『동국병감』과 같은 병서를 간행하여 원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④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12. 정답 ②

‘변발과 호복을 본받지 않으려는’ 반원 자주 개혁을 추진했던 왕은 ‘공민왕’이다. 이 때 이문소가 폐지되고,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 <이명호 한국사> p. 221~222 참조

- ① 장례원은 조선 시대의 관청이다.(세조 때 설치) <이명호 한국사> p. 356 참조
- ③ 「동국병감」은 조선 문종 때 김종서가 쓴 병서이다. <이명호 한국사> p. 410 참조
- ④ 과전법은 고려말 공양왕 때 시행되었다. <이명호 한국사> p. 770 참조

13. 다음은 조선과 일본, 중국의 인구 변화 추세를 나타낸 <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8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삼남지방의 개발과 인구 유입 때문이었다.
- ② 명대 초기 1억 4천만 명 정도였던 중국의 인구는 청대 초기 3억 명을 돌파하였고, 19세기 중반에 4억 2천만 명에 이르렀다.
- ③ 17세기~18세기 초반 조선을 비롯한 삼국은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농경지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 ④ 17세기 이후 일본의 인구는 정체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은 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13. 정답 ③

조선, 청, 일 모두 17세기~18세기 초반에 인구가 증가하였다. 농업기술의 발달이 상업이 발달되면서 '살만해졌기' 때문이다.

- ① 18세기 중반이 아니라 '17세기 중반'이다. 양란이 끝나고 조선의 인구가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 ② 명나라는 1368년에 건국되었다. 청나라는 1636년에 건국되었다. 명대 초기의 인구는 7천5백만 정도, 청대 초기의 인구는 1억 3천만 정도였다.
- ④ 17세기 이후 일본의 인구는 증가하다가, 18세기부터 정체되었다.

14. 밑줄 친 ‘이 농서’가 처음 편찬된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농상집요』는 중국 화북 지방의 농사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서 기후와 토질이 다른 조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에 농사 경험이 풍부한 각 도의 농민들에게 물어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이 농서가 편찬되었다.

- ①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를 표현한 「몽유도원도」가 그려졌다.
- ②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이 성립되었다.
- ③ 윤희는 주자의 사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사문난적으로 몰렸다.
-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14. 정답 ①

‘조선’ 시대에 농민의 ‘경험’을 인터뷰하여 ‘조선의 실정(기후, 땅, 풍토)’에 맞게 편찬한 농서는 「농사직설」이다. 물론 세종 때이다. 현실과 이상을 함께 표현한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것이다. 즉, 「몽유도원도」도 세종 때이다. <이명호 한국사> p. 411, 420, 425 참조

- ② 조계종은 고려 무신정권 때 성립되었다.
- ③ 윤희는 조선 숙종 때 활동하였던 인물이다.
- ④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한 것은 18세기~19세기이다.

15. 밑줄 친 ‘이번 문서’를 보낸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 이전 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에 귀의하여 군신 관계를 맺었다고 하였는데, 이번 문서에서는 강화로 도읍을 옮긴 지 40년에 가깝지만, 오랑캐의 풍습을 미워하여 진도로 도읍을 옮겼다고 한다.

- 『고려첩장(高麗牒狀)』 -

- ① 최우가 도적을 막기 위해 만든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 ② 최충헌이 신변 보호와 집권체제 강화를 위해 조직하였다.
- ③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 ④ 쌍성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직이었다.

15. 정답 ①

‘연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을 보면, 이 조직은 단순한 군진이 아니라 ‘정부’ 수준의 조직임을 알 수 있다. 1270년 개경환도가 발표되자 삼별초는 즉시 반란을 일으키고 배중손의 지휘하에 강화도와 육지와의 교통을 끊었다. 그리고는 왕족 ‘승화후(承化候) 온(溫)’을 국왕으로 추대하고 관부를 설치하고 관리를 임명하여, 개경으로 환도한 정부와 대립하는 새로운 ‘항몽정권’을 수립하였다. 삼별초는 항쟁의 항구적인 근거지를 개경과 멀게 하기 위하여 진도로 남하하였다. 그러나 고려 정부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도가 함락되어 삼별초는 그 중심 인물을 거의 잃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머지 무리가 김통정(金通精)의 지휘 하에 제주도로 들어가서 저항을 하였다. 사료의 ‘강화’와 ‘진도’에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다. 모두 ‘삼별초’와 관련된 내용이다. 삼별초는 최우가 도적을 막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되었다. <이명호 한국사> p. 214, 201 참조

- ② 최충헌이 신변보호를 위해 만든 조직은 ‘도방’이다. 경대승 때 설치되었던 적이 있지만, 최

충헌이 이를 ‘다시’ ‘확대하여’ 설치하였다.

- ③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려 정종 때 조직한 군대는 ‘광군’이다.
- ④ 쌍성총관부 탈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동북면병마사 ‘유인우의 부대’였다.

16. 다음 글을 남긴 국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보잘 것 없는 나, 소자가 어린 나이로 어렵고 큰 유업을 계승하여 지금 12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나는 덕이 부족하여 위로는 천명(天命)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민심에 답하지 못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근심하며 두렵게 여기면서 혹시라도 선대왕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업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런데 지난번 가산(嘉山)의 토적(土賊)이 변란을 일으켜 청천강 이북의 수많은 생명이 도탄에 빠지고 어육(魚肉)이 되었으니 나의 죄이다.

- 『비변사등록』 -

- ①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하였다.
- ②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양인으로 해방시켰다.
- ③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격침되었다.
- ④ 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16. 정답 ②

‘가산’에서 시작하여 ‘청천강 이북’을 점령한 반란은 홍경래의 난이다. ‘보잘 것 없는 나, 소자’는 순조이다. 1800년 정조가 죽은 후 ‘큰 유업을 계승’한 순조가 즉위 ‘12년’ 될 때 일어난 난이므로 홍경래의 난(1811년)임을 사료 앞부분에서 확증할 수 있다. 순조 때 6만 6천여명의 공노비(내사노비)가 해방되었다. <이명호 한국사> p. 329, 350 참조

- ①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것은 1860년, 철종 때이다.
- ③ 박규수가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킨 것은 1866년, 고종 때이다.
- ④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1862년의 임술농민봉기의 결과이다. 철종 때이다.

17. 조선 후기 천주교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해사옥 때 흑산도로 유배를 간 정약전은 그 지역의 어류를 조사한 『자산어보』를 저술하였다.
- ② 안정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 ③ 1791년 윤지충은 어머니 상(喪)에 유교 의식을 거부하여 신주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 권상연과 함께 처형을 당하였다.
- ④ 신유사옥 때 황사영은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북경에 있는 주교에게 보내려다 발각되었다.

17. 정답 ①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다. 정약용과 함께 유배를 갔다가 결국 흑산도에서 죽었다. 정약전은 기해사옥 때 유배를 간 것이 아니라 정약용과 마찬가지로 ‘신유박해(신유사옥)’ 때 유배를 갔다.

- ② 천학(天學)이란 천주교를 말한다. 안정복은 정약용, 정약전 등 남인 세력이 사학(邪學)인 천주교를 가까이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천주교 비판서’인 「천학문답」을 저술하였다.
- ③ 1791년(정조 때) 윤지충의 신주소실 사건이 원인이 되어 신해박해가 일어났다.

④ 정약용과 정약전이 유배를 가게 된 신유박해(신유사옥, 1801) 때 황사영 백서사건이 일어났다.
<이명호 한국사> p. 364, 411 참조

18. 조선시대의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도전은 성리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을 포용하였으며, 특히 『춘추』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 ② 이항은 16세기 조선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을 주장하였다.
- ③ 18세기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호론과, 이를 같다고 주장하는 낙론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김정희는 토지제도 개혁론을 비롯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다.

18. 정답 ③

17세기에 이기론 논쟁이 있었다면, 18세기에는 인물성동이론 논쟁이 있었다. 서울·경기 지역 노론(낙론)은 인물성동론을, 충청 지역 노론(호론)은 인물성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명호 한국사> p. 394 참조

- ① 훈구파와 사림파는 중시한 경전이 달랐다. 훈구파가 중국 주나라의 예법서인 「주례」를 중시했다면, 사림파는 「소학」, 「가례」, 「춘추」를 더 중시하였다. 정도전은 훈구파이므로 성리학 이외의 다양한 사상을 포용한 것은 맞지만, ‘춘추’를 중시 여긴 것은 아니었다.
- ② ‘통치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은 ‘이이’에 어울리는 말이다.
- ④ 유형원과 이익의 사상을 계승한 실학자는 ‘정약용’이다.

19. 다음은 박은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일부분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세시위가 확산되자, 일제는 헌병 경찰은 물론이고 군인까지 긴급 출동시켜 시위군중을 무차별 살상하였다.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합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을 교회에 집합,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 ① 일제는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꾸었다.
- ② 독립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었다.
- ③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자극을 주었다.
- ④ 파리강화회의에 신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렸다.

19. 정답 ④

‘만세 시위’, ‘헌병 경찰’, ‘화성 제암리’ 등을 통해 3·1 운동 관련 자료임을 알 수 있다. 3·1 운동을 계기로 문화통치가 시작되었고, 무장투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임시정부의 수립의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의 5·4 운동 등 약소 민족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명호 한국사> p. 543~546 참조

- ④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인물은 신규식이 아니라 ‘김규식’이다. 또한 파리강화회의는 1919

년 1월에 있었던 것으로, 3·1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3·1 운동의 배경이 된다. <이명호 한국사>
p. 544 참조

20. 4·19 혁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5·10 총선거가 남한에서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다.
- ② 농지개혁이 실시되어 농민들은 자작농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 ③ 혁명 이후 남북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④ 과도 정부가 출범하고,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20. 정답 ④

4·19 혁명의 결과 허정의 과도 정부에서 제3차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 개헌에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의회’가 채택이 되었고, 그 결과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 <이명호 한국사> p. 625~626 참조